

제2회 抱川市文化賞 시상식

미숙한 진행과 시민참여 아쉬워



제2회 포천시문화상 수상자(좌로부터 유철현, 김성남, 한무승, 박경자, 이희용 수상자)

제2회 포천시문화상 시상식이 각 부문별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 축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은 학술부문(박경자 대전대학교 사학과교수), 문화예술부문(이희용 한국연극협회 포천시탁구협회회장), 체육부문(유철현 포천시탁구협회부회장)의 5개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포천시문화상은 1991년 포천군 문화상으로 제정돼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시 승격에 따라 포천시문화상으로 명칭을 변경, 올해로 2회째 맞

았다. 한편, 정작 포천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수상해야 할 행사가 조라 하게 치러졌다는 지적이 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수상자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 포천시문화상 아니냐"며 "정작 시상식 참석자들 중 일반시민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는 주최측인 포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미숙한 행사진행으로 최대종 포천시의회회장이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념품 전달 순서가 없었음에도 사회자의 호명으로 최 의장이 단상에 올랐다가 "기념품이 준비

안됐다"는 말에 그냥 내려오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시민 대표로 선출된 의회회장의 품위에 큰 손상을 준 것으로 이번 시상식의 오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포천시문화상 수상자들의 공식사황은 다음과 같다. ▲박경자 교수는 다수의 학술 발표회를 주관하고, 특히 "포천군지", "선비의 고장 약진하는 포천" 등 각종 포천 향토지의 집필·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천시 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한무승 교장은 34년여 동안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해오면서 평소 따뜻한 마음씨와 겸손한 생활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실 있는 교육과정편성과 수업방법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김성남 회장은 1979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소흘읍 회장과

포천군 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2001년부터는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 연합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제10회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성공리에 치르는 등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경기도탁구협회 이사이기도 한 유철현 부회장은 동남중고등학교 탁구부를 창단해 전국대회 13회 우승, 8회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선수를 비롯해 김대연, 김건하, 서동철 등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는 등 포천시 체육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인지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경기도 문화원

소외계층 문화체험 행사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지회(지회장 김중기)는 저소득층 및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부터 12월3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각 시·군 문화원에서 추천받거나 개인별로 접수받아 추진한다.

참가 희망자는 문화원 도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239-1020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문화칼럼

포천의 길과 건물은 우리 것으로 작명(作名)하자

요즈음 우리 주변에서는 아기이름 지어주 기라는 시 차원의 비교적 관청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창의적인 행사나 변변한 볼거리가 부족하여 순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의미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넘겨버렸던 것에서 생각해 못했던 곳에서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과정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흔하게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와 실행을 통하여 무의미하게 지나던 것을 응급차게 진행시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참여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느끼며 호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성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누가 그 일을 만들었는지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 것에 대한 순수성과 진실성 그리고 자신과의 적합성이 하나가 되어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변에서 마음속에 빈 공간같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있어 이야기 한다면 도로나 건물의 작명의 명칭의 선택에 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먼저 시민의 마음을 열고 모두가 참여하여 한 가지 자긍심으로 또는 진정한 속기로움을 남을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현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고장의 도로이름에는 고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것이 너무도 부족하다. 진정 우리에게 다른 지역에 존재하는 큰 인물과 상징적인 유래가 존재하지 않아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름 붙일 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에 의문을 제시해 본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서울에 있는 을지로, 세종로, 퇴계로, 율곡로 등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물의 이름을 길에 명명하여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그 인물의 중요성을 더 커지게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확인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지명을 근거로 명명한 예를 들면 종로, 청계로, 강변대로, 반포로, 테헤란로, 대각로 등 명명시기의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역량이 그 길 이름에 배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면 인물적인 면에서 오성(백사), 한음, 사암, 봉래, 면암 등 역사적으로 나라를 움직인 커다란 족적의 명칭 이름은 수도 없이 많고 지명으로 보면 왕방, 한내, 마홍, 황새, 구름, 신을 등의 산과 내와 역사적인 변화를 그 이름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완벽한 자료와 자격을 겸비한 우리 고장 고유의 명칭이 존재함에도 우리의 존재를 망각한 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적을 본인의 이름이 아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구석구석을 정비한다면 그 자긍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시 당국이나 시의회 그리고 포천을 사랑하는 단체나 기업 등 시민 모두는 새로 생기는 길이나 건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자존심이 배어있는 이름으로 작명하여 그 의미를 회자하게 하여야 정통성의 우선순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잘하는 정치요, 경영요, 교육요, 문화요이기 때문이다.

우리주변 곳곳에 문화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름으로의 변화된 작명으로 누구나 자랑스러운 고향이 문화와 예술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준비될 때에 심사숙고와 공개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희용 한국연극협회 포천시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14)

포천의 온천장



어의 분(변), 멧돼지의 머릿골, 늑대의 피를 육탕에 풀었다 한다.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살았던 알라카낭 궁전에 육탕은 십향탕(十香湯)이었다고 하며 요즈음 일본의 온천 향탕에는 사과, 유자, 무즙탕, 고려인삼탕, 생강즙을 푼 와인탕이 한국의 관광객을 유인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탕에는 초콜릿탕, 와인탕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벌써부터 육탕을 비롯한 각종 한약탕이 인기리에 각종 탕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충남 해변의 머드탕과 오이도나 경기만의 해수탕(海水湯)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한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내 고향 포천의 온천은 어떤 탕으로 다른 곳의 온천 탕과 차별화를 하고 있을까? 맑

은 지하수탕을 기본으로 하여 쑥탕, 느릅나무탕, 고로쇠물탕, 병꽃탕, 인삼탕, 참나무향탕, 밤나무향탕, 짙향탕, 진달래꽃탕, 도라지탕, 우유탕, 연꽃탕, 영지버섯탕, 참숯향탕, 솔향탕, 쑥꽃탕...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다.

몇년 전 충북 수안보 월악산 기슭으로 문화기행을 갔는데 온천욕을 즐길 철인데도 육탕은 물론 호텔, 모텔, 식당 등이 파란만장하고 있었다. 수안보온천이나 충남의 온천지대가 내 고향 포천의 온천지대가 성업을 이루는 바람에 모두 부도가 나고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탄식을 하고 있었다. 양조장도 포천이동맥거리의 유명세 바람에 모두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는걸 보고 왔던 생각이 난다.

우리 수도 서울의 천만이 넘는 인구와 경기도 인구 천만 등 한국인구의 50%에 육박하는 관광객을 불과 한시간 거리에 두고 있다. 영종도 공항도 직통거리로 150분이면 유치가 가능하지 않은가? 목욕 좋아하는 일본 관광객을 내고향 포천으로 유치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온천 목욕하고 이동막걸리 반주에다 이동갈비도 뜯고 순두부로 식사하는 관광 차별화 전략을 세워 시행해 보면 어떨까?

먹기 좋아하는 중국 관광객에게는 중국식 차별화된 식당도 생각해 볼지하다.

일본 지방의원단 관광유치, 일본 수하여행단 유치, 중국 음식 맛기행단 유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독서경진 및 사랑의 효 편지쓰기 예선대회

국민독서 30명, 효 편지쓰기 26명 수상

26일 포천시청 대강당에서 새마을문고포천시지부(지부장 박중구)와 포천시새마을부녀회(회장 최계숙)가 주최한 제24회 대동령기 국민독서경진 및 사랑의 효 편지쓰기 예선대회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수상자는 지난 9월1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대회에서 초·중·고, 대학 및 일반부에서 응모한 200여편의 작품을 포천시지부장상, 포천시 새마을포천시 문인협회와 지역작가들이 심사해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독서 부문 30명과 사랑의 효 편지쓰기 부문 2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 독후감발표 및 사랑의 효 편지 발표 후 진행된 시상식은 '대조영과 발해'를 읽고 독후감을 쓴 강현동(포천고 1)군을 비롯한 7명이 포천시장 상을 수상했다.

또 차상, 차하, 입선 등에 따라 포천시의회의장상, 새마을문고 동포천시지회장상, 새마을문고 포천시지부장상, 포천시 새마을부녀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가 범시민 독서생활화와 경료효친상상을 고취를 위해 마

련된 만큼 청소년들이 도덕성과 가정윤리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 독후감은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경선에 참가하게 된다.

장일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국민독서경진대회 ▶ 초등부 서민지(정교초 6년/ TV 문화 행복한 세상) ▶ 중등부 이 밝음(일동중 2년/세계사의 전설, 거지말, 날조된 신화들) ▶ 고등부 강현동(포천고 1년/대조영과 발해) ▶ 일반부 서민규(국군일동병원 상병/나는 못생겼다).
- 효편지쓰기 ▶ 초등부 조성한(신북초 6년) ▶ 중등부 이예인(갈월중 2년) ▶ 고등부 고시현(관인고 2년)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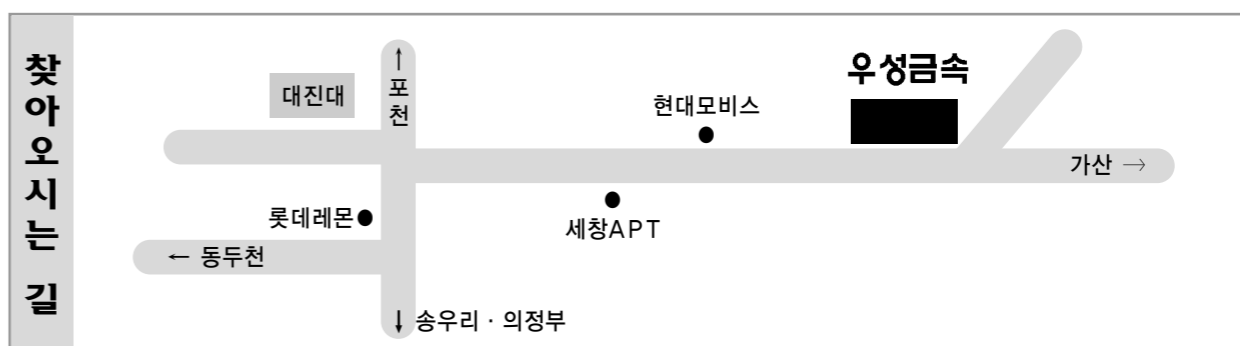
고철·비철 등 각종 산업용 금속제품 재활용 전문업체 “우성금속 자원”

▶ 알루미늄·황동·청동·스텐·공장철거 전문 ◀



“우성금속은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재활용 가능한 각종 비철·고철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첨단장비를 이용해 공장철거등에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철거
상담환영
고철
고가매입



본사 : 포천시 선단동 64 Tel : 031)541-5500 011)351-8742 대표 이춘식